

보도자료

마즐레니 갤러리, '2022 프리즈 마스터즈 서울' 참가

프리즈 마스터즈 서울 2022 | 서울 코엑스 C 홀 | 부스 M2

VIP 프리뷰(초대 한정): 2022년 9월 2일(금)

일반 관람: 2022년 9월 3일(토) – 5일(월)

아고스티노 보날루미(Agostino Bonalumi) | 알베르토 부리(Alberto Burri) |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 피에로 만초니(Piero Manzoni) | 호안 미로 (Joan Miró) | 조르조 모란디(Giorgio Morandi) | 빅토르 바사렐리(Victor Vasarely)

마즐레니 갤러리는 프리즈 서울 2022에서 “전후 유럽의 거장들(Post-War European Masters)”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주요 이탈리아 미술가들의 1950년대와 1960년대 작품들을 조망하는 이 전시는 호안 미로의 초현실주의적 인물들 및 빅토르 바사렐리의 옵아트(Optical Art) 명작들과 나란히 놓여 총체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프리즈 서울에서 마즐레니 갤러리는 이탈리아 및 국제 전후 거장들의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갤러리의 컬렉션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20세기 이탈리아 미술사를 관통하며 그 발전 과정을 추적한다. 형이상학 회화(metaphysical painting)와 같은 **아방가르드** 사조부터 **전후 예술**, 그리고 향후 수십년 간의 예술적 연구 작품들은 호안 미로의 초현실주의적 비전과 바사렐리의 옵아트 명작과 함께 전시되어, 작품 간의 긴밀한 대화를 형성한다.

형이상학적 인물들과 신비주의적 정물화는 **조르조 데 키리코**(1888-1978)와 **조르조 모란디**(1890-1964)가 긴밀하게 만나는 지점이며, 이 작품들은 또한 호안 미로의 초현실주의적 인물들과 병치되어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데 키리코는 고전주의적 모티프와 건축 양식을 일상생활 속 물건에 접목하여 평범함을 경이로움으로 바꾸는 불가사의한 풍경을 창조해냈다. 반면, 모란디의 <Natura morta (Still Life)>(1959)는 층층이 얹게 쌓은 물감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지와 연결과 일상적 물건들에 대한 관심—이와 더불어 자연환경—은 **호안 미로**(1893-1983)의

예술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요소들이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호안 미로는 여자, 새, 별들을 주제로 하는 시적인 작품 연작을 전개했는데, <Femmes et oiseaux>(1967)가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이다.

알베르토 부리(1915-1955)는 20 세기 주요 이탈리아 예술가 중 하나로 꼽힌다.

앵포르멜(Informel)의 선구자이기도 한 그는,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리는 그의 전작에 걸쳐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사실주의를 발전시켰는데, 이는 전후 행위 추상 (gestural abstraction)의 실존주의적 주제와는 결을 달리한다. 이처럼, 작가의 <Sacco Bianco> (1956), <Rosso plastica> (1962), <e Nero Cretto> (1978) 작품들은 포대자루, 플라스틱, 산화아연과 도자기 흙, 아크릴, 목재용 아교의 혼합물(아크로비닐리코, acrovinyli) 등 원자재를 이용한 작가의 실험을 분명히 보여준다.

루치오 폰타나(1899-1968)는 개념미술에 대한 이후의 예술적 연구를 형성한 예술가로, 회화와 조각작품의 표면을 칼로 찢거나 구멍을 낸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1947 년 발표한 <공간주의자 선언(Manifesto Spaziale; Spatialist Manifesto)>을 통해 구조주의(Spatialism) 사조를 창시하였으며, 20 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하나로 여겨진다.

폰타나의 혁신적인 예술세계와 그 영향은 젊은 세대의 예술가들로 하여금 그의 실험을 이어 나가게 했다. **피에로 만초니**(1933-1963)는 <무채색(Achromie)> 연작을 통해 예술의 본질 그 자체와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고스티노 보날루미**(1935-2013)는 회화와 조각을 이분하는 전통적인 분류에 도전하며 형태를 지닌 캔버스 작품을 통해 작품과 공간, 그리고 관람자 사이에 전혀 없는 상호작용을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구조에의 탐구와 단색의 표면은 유럽 외부의 다양한 예술운동에서도 계속되었는데, 그 예로 1970 년대 한국의 단색화 작가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옵아트 경향의 선구자인 **빅토르 바사렐리**(1906-1997)의 작품들이다. 그는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주는 듯한 작품을 만들어내며 옵아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전시에서는 흔히 “흑백시대”라 불리는 1950 년대와 60 년대 작품들부터 1970 년대와 80 년대 생동적 색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눈을 이끄는 초록색 톤의 유화 작품 <Gestalt-chi>(1973)는 작가 특유의 기하학적 문법 속 동적 긴장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마즐레니

1950 년대 지오반니 마즐레니와 안나 피아 마즐레니의 개인 컬렉션으로 시작된 마즐레니는 1986 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갤러리로 설립되며 발전했다. 2014 년부터는 토리노에 더해, 런던 메이페어(Mayfair) 구역에 두 번째 갤러리 공간을 설립하여 규모를 확장했다. 지난 30 년간,

마졸레니 갤러리는 200 명 이상의 저명한 20 세기 이탈리아 및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기획해왔다. 특히, 미술관 소장품에 준하는 수준의 이탈리아 전후 예술 작품 전시를 기획해왔으며, 최근에는 작가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동시대 미술 또한 다루고 있다. 현재, 마졸레니 갤러리는 다비데 마졸레니와 루이지 마졸레니의 리더십 아래, 아트 바젤(바젤, 마이애미 비치, 홍콩), 프리즈 마스터즈(런던, 서울), TEFAF(마스트리히트, 뉴욕), FIAC(파리) 등 해외 유수의 아트페어에 활발히 참가하며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사항 Note to Editors

프리즈 마스터즈 서울 2022 | 부스 M2

서울 코엑스 C 홀 | 강남구 용산대로 513, 06164

VIP 프리뷰(초대 한정): 2022 년 9 월 2 일(금), 오후 2 시부터 8 시; 9 월 3 일(토)-4 일(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1 시

일반 관람: 2022 년 9 월 3 일(토) - 4 일(일) 오후 1 시부터 7 시 반; 5 일(월) 오전 11 시부터 오후 5 시

마졸레니 갤러리, 런던

주소: Mazzoleni, 15 Old Bond Street, W1S 4AX, London

연락처: +44 20 7495 8805 | 이메일: london@mazzoleniart.com

운영시간: 월 - 금, 오전 10 시 - 오후 6 시 | 토요일, 예약 운영

마졸레니 갤러리, 이탈리아 토리노

주소: Mazzoleni, Piazza Solferino, 2, 10121 Torino, IT

운영시간: 화 - 토, 오전 10 시 - 오후 1 시 / 오후 3 시 45 분 - 7 시 15 분 | 월요일, 예약 운영

웹사이트: www.mazzoleniart.com

홍보 담당자 Press Office

Mazzoleni, London - Torino

Lucile Brun | 연락처: +39 340 0664675 | 이메일: lucile@mazzoleniart.com

홍보대행 Pickles PR

Maria Cristina Giusti | 연락처: +39 339 8090604 | 이메일: cristina@picklespr.com

Gair Burton | 연락처: +44 7402 784 470 | 이메일: gair@picklespr.com